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가 반값?

전주시,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안내

대형마트 1회용 봉투 사용 금지 제과점까지 확대

문화누리카드 8만원 상향 등 유익한 정보 제공

올해부터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했던 비수급 빈곤층의 생활 보장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정부 생계급여 지원액의 30~40%수준의 생계급여가 지원된다.

또, 대형마트와 규모가 큰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1회용봉투 사용 금지가 제과점까지 확대되고,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절반이 경감된다. 이는 올해 전주시에서 처음 시행하거나 달라지는 제도들이다.

전주시는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소개한 '2019 달라지는 시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각 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해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이 책자는 △세제·부동산 △보건·복지 △건설·교통·환경 △재난안전·산업·경제 △문화·민원·일반행정 총 5개 분야 44개 항목으로 정리돼 있다.

세부 내용을 각각 집어보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체납 지방세 미납시 매월 체납세에 가산되는 징수 가산금이 75/10000로 인하되고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 발급시 납부기한을 20일로 이내로 연장했다.

또, 신혼부부에 대한 세제해택으로 신혼부부가 거주목적으로 생애 최초로 유상거래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올 한해동안 부과되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해 준다.

문화 분야는 기존 1인당 연간 7만원 지원하던 문화누리카드가 8만원으로 상향되고, 민원·일반행정 분야에서는 민원인이 방문 또는 온라인상으로 행복출산통합신청서비스를 신청하면 그 처리결과를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 분야의 경우 소득하위 90% 이하에 선별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모든 5세까지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치매노인 등에 공공후견인을 지원해 준다. 또,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거급여 대상자 기준이 중위소득의 43%에서 44%로, 기준임대료는 4인 가구 기준 20만8000원에서 22만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재난안전·산업·경제 분야에서는 폭염·한파로 인한 피해가 자연재난에 포함되면서 보상이 가능해지고, 친환경농산물 신규인증 또는 연장을 받은 농가에 대한 인증비용 지원이 농가당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여성농업인에게 주행식 예초기와 다용도 작업대 등의 편의장비를 지원하고, 여성 기업에 업체당 300만원 이내의 마케팅 비용도 지원한다.

끝으로, 건설·교통·환경 분야에서는 올해부터 어린이집 건축물 석면조사를 연면적에 관계없이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이 변경돼 어린이와 노약자 등 민감 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한다. 또, 전기화물차 보조금을 최고 3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책자는 완산·덕진구청 민원실과 35개 동 주민센터에 배포될 예정으로,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송효철 기자

"'전두환, 민주주의 아버지' 이순자 주장 강력 규탄"

전두환 전 대통령(88)을 '민주주의 아버지'로 치켜세운 전 영부인 이순자(80)씨의 발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시민단체가 강하게 항의했다.

유족들을 비롯한 '오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오사모)'과 '옛 전남도청 지킴이 어머니들(어머니회)'은 지난 4일 오후 3시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여사의 주장을 규탄했다고 전해졌다.

오사모 등은 "전두환씨의 부인 이순자씨가 '민주화의 아버지는 자신의 남편 전두환'이라는 망언을 듣고 치솟는 분노와 울화가 치밀었다"며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편히 들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사모는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정부에 의해 목숨을 잃거나 연행을 당한 시민들의 가족으로 구성된 광주지역 시민단체다.

이들은 "새벽 첫차를 타고 이순자씨의 망언을 규탄하고 분노와 엄중한 경고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이순자씨, 당신은 과연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지, 아니면 인간의 탈을 쓰고 있는 악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순자씨는 지난 1일 공개된 한 보수 인터넷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광주 5·18단체도 이미 얻을 거 다 얻었는데 그렇게 해서 얻을 게 뭐가 있겠느냐"며 "민주주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강석훈 기자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전주시, 120% 이하 가정으로 확대 등 출산장려 늘리기로

올해부터 산모의 출산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확대된다.

전주시는 올해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과 출산가정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원 등 출생장려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먼저, 시 보건소는 저출생 대책으로 기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에 한해 지원하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을 120% 이하 가정으로 확대했다.

기준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120% 이하는 3인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14만6494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14만7114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다.

시는 이외에도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24세 이하)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에 관계 없이 지원, 대상자에게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 식사준비 △영양관리 △좌욕지원 △위생관리 △신생아 청결관리 △수유지원 △예방접종 지원 △산모·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의류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출산예정일 증빙서류(산모 수첩,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산모 신분증 등을 지참해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대상은 전주시에 출생 신고한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 현재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지원대상자인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가정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시 출생아 1명당 종량제 쓰레기봉투 10리터 60매를 한 번에 지급받게 된다. /송효철 기자

공사 현장 침입해 공구 2점 훔친 50대 교도소서 재 검거

공사 현장에 몰래 들어가 공구 2점을 훔쳐 달아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4일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모씨(57)는 남원시 B동 한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침입해 레이저 레벨기 1대와 전동드릴 1대 등 시가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모씨를 추적하다 이미 다른 사건으로 C교도소에 수감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3일 오후 4시경 범행사실을 자백 받았다.

/강석훈 기자

지역사회 보듬기 앞장 한국국토정보공사(LX) 관계자들이 지난 4일 사회적기업인 '완주 로컬푸드 건강한 밥상'과 함께 지역 농산물로 이뤄진 식품 꾸러미를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한국국토정보공사 제공〉

솔내청소년수련관, 여가부 프로그램 공모 '우수'

'윙-윈 부딪히는 열정, 청소년 드론축구'

전주시 솔내청소년수련관이 운영한 청소년 드론축구 프로그램이 청소년 활동 지원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

수련관은 2018 여성가족부 청소년프로그램공모사업 평가에서 '윙(wing)-윈(win) 부딪히는 열정, 청소년 드론축구'가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공모사업 평가는 총 14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프로그램은 과학과 스포츠를 융합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솔내청소년수련관은 지난 4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드론 축구의 이해 △시뮬레이션 교육 △4차 산업 분야의 이해 △드론축구볼 조종 훈련 등 23회 교육을 거쳐 '솔내윙스' 유소년 드론축구단을 창단했다.

이후, 축구단은 2018 코리아드론축구 페스티벌에서 유소년 부분 특별상(전주시장상)을 수상했으며, LX한국국토정보공사 전국드론축구대회 드리블(개인전)분야에서 3위를 수상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창호 학생(신동초 6)은 "드론축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한 해 동안 친구들과 즐겁게 연습했고, 협동심과 배려도 배우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관우 수련관장은 "일반적인 드론조종은 개인플레이가 대부분인데 드론축구는 팀플레이가 가능해서 협동심과 단결력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임세원 교수 살해 용의자 "내 머리에 소형 폭탄 있다"

임세원(47) 교수를 흉기로 숨지게 한 박모씨(30)가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머리에 소형폭탄을 심은 것에 대한 논쟁을 벌이다 경비를 부르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지난 4일 전해졌다.

경찰은 "이 같은 진술이 박모씨가 횡설수설하는 중에 나와 범행동기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본다."며 "병원을 압수수색 해 확보한 박모씨의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진료 시기와 치료 여부 등을 파악해 범행동기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박모씨는 지난 12월 31일 오후 5시 44분경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상담 중이던 임 교수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석훈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